

기독 중년 이혼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기독교상담적 접근

이 후 주*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 중년 이혼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로서 기독교인 중년 여성들이 이혼 후 경험하는 관계 상실 경험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고찰하여 상담과 돌봄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관계 상실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관계 상실 경험을 통해 회복과정과 신앙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각 사례별로 연구참여자들의 관계 상실 경험과 의미가 잘 드러나는 문장들이 발췌되었고 의미 있는 단위를 통해 87개의 주제와 27개의 하위범주, 8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상위범주 8개는 '산산이 부서진 자아', '고통으로 얼룩진 삶', '과거에 갇혀버린 일상', '무거운 삶의 무게', '상처 감싸며 일어서기', '삶의 의미를 찾아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아정체성과 삶의 회복'이다. 8개의 상위범주는 연구 질문이 다루는 주제인 '관계 상실 경험', '회복과정', '신앙의 역할'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독교 상담과 교회의 돌봄 현장에서 관계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기독 중년 이혼 여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독 중년 여성, 이혼, 관계 상실, 기독교 상담, 회복

* 마르페상담센터 상담사

• 이 연구는 총신대학교 이후주의 박사학위 논문(2022년 8월, 지도교수: 김준)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특히 상실 경험 중에서도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나 이별은 인생에서 겪는 다른 어떤 상실 경험보다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낳는다(Bowlby, 1973).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외상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정서적·물리적으로 단절하게 되는 상실 경험이라고 한다(Anderson & Mitchell, 1983). 이와 같은 상실은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즉, 죽음 관련 상실, 관계의 단절에 의한 상실,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포함하는 기타 상실,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로 구분된다(Sofka, 1997). 사람은 이와 같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영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상실의 원인과 내용, 상실의 대상에 따라 조금씩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으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증상을 일으키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일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Herman, 1992).

상실의 유형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보고하는 외상 중 하나는 사별, 이혼, 이별과 같은 관계 상실 경험이다(Kendler et al., 2003; 김아라, 2015; 조진희, 2018). 관계 상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신체적·정서적 관계가 끊어져 더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별을 포함하여 이혼이나 실연과 같이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Sofka, 1997). 관계 상실의 원인 중 하나인 이혼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서 이혼 후 당사자들은 익숙했던 일상적인 삶의 패턴과 관계들 그리고 삶의 의미들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혼 후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Castaldo, 2004).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이혼은 당사자에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사건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tson, 1992; 봉동연, 2014).

과거 우리나라 이혼 현상은 이혼 발생이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40-50대의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평균 이혼 연령이 남자는 50세, 여자는 46세로 전년 대비 0.8세 상승하는 등 중년기 이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1). 이러한 현상은 이혼에 대한 시각도 함께 변화하고 있어 이혼을 사회

문제의 하나로 취급했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이혼을 선택하거나 이혼을 갈등과 괴로움의 관계의 종결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성정현, 2017).

이혼에 관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자들이 경험하는 이혼 후 삶의 적응과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와 이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혼 여성들의 성장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김경옥, 2018; 박경원, 2019; 성정현, 2017; 송옥, 2012). 기독교 상담관점에서는 기독교인 이혼 여성들을 돌볼 수 있는 실제적인 상담 방법과 교회공동체에서의 돌봄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목회 상담적 접근으로는 이혼자들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와 위로 사역에 관한 연구, 이혼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혼 감소를 위한 기독교적 대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최재락, 2010; 홍구화, 2010; 박재표, 2012; 황영훈, 2002; 심수명, 2005; 김규리, 2019).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상담과 돌봄이 이혼 여성들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유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이혼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혼 현상에 집중하여 총체적인 이혼 경험과 이혼 후 성장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혼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심리와 같은 내면의 경험에 관해서는 심층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이혼으로 인한 관계 상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관계 상실의 경험 자체보다는 관계 상실 경험을 통한 성장 과정 변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임선영, 권석만, 2012; 최선제, 안현의, 2013; 김송희, 2020; 김아라, 2015). 이는 관계 상실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보다는 무엇이 관계 상실 후 성장을 주었는지에 관한 결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계 상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양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었으나, 관계 상실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관계 상실의 경험은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양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내부자적인 관찰과 탐색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맥락,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중년 이혼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신앙 안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들여다보고 관계 상실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관계 상실의 회복과정에서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 상담에서 인간의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

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상담적 접근을 통해 그들의 관계 상실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여 기독교 중년 이혼 여성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하는 한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삶의 변화과정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이혼과 관계 상실

(1) 이혼과 이혼 여성

이혼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일컬으며,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기로 한 혼인의 목적을 파기하고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혼은 부부관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이와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박경원, 2019). 이혼의 개념은 부부간의 문제를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재판으로 결정짓는 절차와 과정을 말하며,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결혼생활 중에 이혼 요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혼 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김수정, 권신영, 2001). 법적으로 볼 때 이혼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나버리는 한 시점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는 오랜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 많은 경험과 사건들의 결과이기도 하다(송옥, 2012).

이혼의 이론적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혼을 일탈로 규정하는 병리모델(pathology model)과 이혼을 불가피한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는 위기모델(crisis model)로 나누어진다(Kristner,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이 광범위한 사회현상으로 발전하면서 이혼을 일탈로 규정하는 병리적 모델보다 사회현상의 한 흐름으로 보는 위기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혼을 개인적·사회적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송옥, 2012). 이혼 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혼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단계들로 이루어

져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 이혼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박경원, 2019). 이혼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 여성들은 정서적, 경제적, 사회관계적, 영적·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와의 관계 상실로 인해 복합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혼 직후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며 정서적 단절로 인한 상실감은 슬픔과 외로움을 동반하며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 공포감을 경험하기도 한다(Anderson & Mitchell, 1983). 경제적인 문제는 이혼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넘어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데 많은 이혼 여성들은 생계비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 주거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성정현, 2017).

이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은 이혼에 대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이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스스로 고립되거나 주변 및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사회 관계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다(김경옥, 2018). 특히 기독교인들의 이혼은 영적·신앙적인 문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의 기독교 이혼 여성들은 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활동으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기피하여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혼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다양한 성서적 해석들로 인해 기독교 이혼 여성들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의 돌봄들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 이혼은 영적·신앙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최동인, 2005).

(2) 관계 상실

관계 상실이란 상실 경험의 일부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 상실에는 죽음 관련 상실과 단절 상실이 포함된다.(Sofka, 1997). 죽음 관련 상실은 가까운 대상 혹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을 죽음으로 잃는 경우이며 단절 상실은 대상과의 정서적·신체적인 관계가 상실되는 것으로서 이별, 이혼, 친구와의 관계 변화, 가족과의 단절, 불임 등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상실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정과 함께 고통스러운 심상이 반복적으로 침투하여 수면의 어려움과 과각성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최선재, 안현의, 2013). 또한 상실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슬픔과 그리움이 깊어져 심각한 우울 상태로 접어들기도 하며 심리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박선정, 2015; 홍구화, 2009; 조진희, 정문경; 2020).

상실로 인한 슬픔은 인간의 삶 속에서 누구나 한번은 경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치유된다(장형배, 2020).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혼, 이별, 사별 등과 같이 정서적인 유대가 끊어지는 관계 상실 경험은 인생의 위기와 함께 깊은 슬픔을 가져오며 때로는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박선정, 2015; 홍구화, 2009). 관계 상실 경험 이후에는 누구나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느끼거나 상실한 대상이 갑자기 떠오르는 침투적 사고와 기억을 경험하며 슬픔과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삶의 무의미함과 고립감, 희망의 상실을 포함한 부정적 증상들을 경험한다(최선재, 안현의, 2013; 조진희, 정문경, 2020).

2) 이혼과 관계 상실에 대한 성경적 이해

(1) 이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 관계임(마 19:6)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한재희, 2003).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잘 유지하려는 이상(理想)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결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있어 결혼에 대한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Luck(1987)은 결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위태롭게 할 때는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보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결혼의 영속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그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할 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Rambo(1983)는 기독교인 이혼자들이 이혼의 고통으로 인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기보다는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가 도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들을 위해 교회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혼자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적 지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여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이혼은 비기독교인들이 겪게 되는 심리와 정서, 경제, 사회관계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신앙적인 문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하는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의 기독교 이혼 여성들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의 시각으로 인해 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거나 죄책감으로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한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신앙적인 갈등이 외부의 시선

을 차단하게 만들고 교회와 신앙의 삶을 단절하게 하여 교회공동체를 떠나거나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최동인, 2005).

(2) 관계 상실에 대한 성경적 관점

관계 상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독교 상담관점에서 인간의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며 이는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직 신학자 Hoekema(1979)는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바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인 삼중관계 속에 놓여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두 영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인간은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장 온전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삼중적 관계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의 관계성을 이루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 상실 경험 이후에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수반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애도(mourning)라고 한다(Worden, 2002). Wright(2002)는 애도에 대해 하나님이 고통을 통과하도록 도우시고자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애도의 과정은 상실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상실의 대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애도의 과정이 성숙으로 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3) 중년 여성의 이혼과 관계 상실 경험

(1) 중년 여성의 이혼

중년 여성의 이혼은 빈 등지 시기와 갱년기가 맞물리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년기의 삶을 더욱 위협한다(송옥, 2012). 이들이 겪는 이혼의 과정은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으로 역동적인 감정들을 느끼며 삶이 피폐해지기도 하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중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이혼의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이며 그 외에 성격 차이, 경제적인 파탄, 가정 폭력, 가치관의 변화, 중년기 발달 위기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혼 여성들은 이혼과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뿐 아니라 심리적인 상실감도 경험한다. 자신이 믿고 바라보았던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깨어지면서 결혼과 동시에 함께 꿈꾸었던 많은 것들이 좌절되고 결혼생활에 대한 꿈이 깨지면서 실망과 배신감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자아상도 무너져 버리는 아픔을 겪는다 (금일화, 2018; 봉동연, 2014).

또한 중년 여성은 이혼의 전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심리적 현상에 대해 Amato & Rogers(1997)는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에는 분노와 상처, 억압, 질투, 변덕스러움, 비난 등이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배우자에게 이혼 제기를 당한 중년 여성에게 흔히 보이는 정서적 반응으로는 분노, 증오, 놀람, 마음의 상처, 냉담, 절망, 두려움, 등이 나타났으며, 이혼이 진행될수록 공격적이거나 또는 회피적인 행동이 점차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이혼이나 이혼 과정에 있는 중년 여성들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과 낮이 뒤바뀌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혼의 요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는 배신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으로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남편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외부적으로 적절하게 표출되지 못하면 분노의 대상이 자신 혹은 자신의 신체 일부로 향하여 신체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Kohut, 1971).

(2) 중년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

중년기는 본격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로 많은 인생 경험과 함께 부모를 비롯하여 배우자,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재평가하게 된다(Baltes & Baltes, 1990).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관계 상실 경험은 인생의 큰 이중적인 위기에 처하게 하며 슬픔, 분노, 죄책감, 수치심, 고립감과 같은 정서적 고통은 물론 상실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가족부양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부딪치게 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조진희, 2018).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 상실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두려움, 비난과 분노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증상들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김송희, 2018). 이러한 상실에 대한 반응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복된다. 그러나 정서적 관계가 단절되는 관계 상실 경험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한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삶의 실존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하며 인생의 목표와 가치의 의미를 잃게 하기도 한다.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 이혼이 신앙 안에서 수용 받지 못

하고 배척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자책과 죄책감으로 이어져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상실 경험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상실 이후의 삶은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개인에게 나타나는 자기실현의 삶과 정체성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진희, 2018; 전지경, 2017).

(3) 중년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에 대한 성경적 이해

중년기는 신앙생활을 통해 개인의 삶의 성숙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시기이다(Benner, 1998). 중년 이혼 여성들 가운데 기독교인 여성들은 이혼의 아픔을 신앙공동체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 이혼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며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기독교 상담자와 목회자가 이혼자들을 상담할 때는 그들 스스로 이혼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이혼에 대해 무조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혼을 성경에 빚대어 정죄하기보다는 이혼 당사자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고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재희, 2003; 황영훈, 2002)

또한 이혼으로 인한 관계의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는 것으로서 언약적 관계가 공적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이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오늘의 시대에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이혼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처리의 결과가 아닌 결혼생활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중년기 여성들에게 있어 이혼은 지나온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인생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고통과 신앙적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한 돌봄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

2. 연구 방법론

1) 연구방법

질적 사례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경계를 가진 사례의 변화를 탐색하며, 그 사례에 대한 다양한 정보원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

집하여 사례 기술과 사례의 주제들을 보고한다(Creswel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이라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에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인 관계 상실 경험과 참여자들 간의 공통적인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Creswell의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기독교 중년 여성 개인의 관계 상실 경험에 초점을 맞춰 회복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구자는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 질문은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관계 상실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이혼 후 관계 상실 회복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관계 상실 회복과정에서 신앙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연구참여자 1인당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면담내용을 전사한 후 녹음한 파일과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관계 상실 경험과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 의미 있는 단위들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와 인터뷰 내용의 비밀보장, 자료의 익명처리와 연구참여자 개인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고지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기독교인으로서 40세~60세 이하의 중년 이혼 여성으로 이혼 후 재혼 경험이 없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기독교 중년 여성이면서 이혼 여성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이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의 특성상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눈덩이 표집으로 진행하였다. 총 1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에 참여한 12명 중 2명은 본 연구의 주제와 벗어났고 1명은 심리적 변화로 인해 면담이 중단되었으며, 2명은 면담 종료 후 참여자가 연구 철회를 요청하여 5명을 제외한 총 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징

구분	연령	신앙 연수	학력	결혼 기간	이혼 후 기간	이혼 사유
참여자1	60대 초반	13	대졸	27	10	배우자의 외도
참여자2	40대 중반	35	대학원졸	5	10	성격 차이
참여자3	40대 초반	40	대학원졸	12	4	배우자의 외도, 폭력
참여자4	50대 중반	20	대졸	27	6	배우자의 외도
참여자5	40대 초반	11	고졸	9	11	배우자의 폭력, 외도
참여자6	40대 중반	14	전문대졸	6	6	배우자의 외도
참여자7	50대 중반	12	고졸	15	12	배우자의 외도

4. 연구결과

1) 사례별 분석

본 연구의 사례별 분석은 이혼의 관계 상실 특성과 관계 상실 경험 그리고 회복과정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의미 변화를 중점으로 기술하였다.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현재 60세 중년 여성으로 27년간의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이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23세에 결혼하여 시댁에 들어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2대째 의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부와 명성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다. 그래서인지 생활력이 약했고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사업을 벌였다가 망하기도 하고 돈을 펑펑 쓰는 등 무절제한 소비 습관과 무분별한 생활로 결혼초부터 갈등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이 바라보는 남편은 너무나 무능했고 책임감이 없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남편을 돕고 시댁 어른들과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았으나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등한시켰으며 결국 외도녀와 살림을 차리게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과 이혼하기까지 4년의 숙려기간을 보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렸다. 이혼 직후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분을 이기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다니거나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도 많았으며 이혼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연구참여자 1은 그동안 헌신을 다해 살아온 27년의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 허무함, 억울함, 분노, 배신감에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더구나 이혼 하게 된 순간부터 시댁에서의 모든 경제적 지원이 단절되고 남편이 아이들까지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적 책임감이 가중되었다. 이혼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 받는 일들이 많았지만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 1은 이혼으로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무렵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친동생이 교회로 데려갔고 주인집 권사님이 새벽예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교육, 공동체 모임들은 열심히 따라다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고 한해가 지나갈수록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가진 것 없어도 풍요함을 누릴 수 있었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자의 삶과 비전을 품고 봉사자로 섬겼으며 교회의 리더훈련과 성경 아카데미를 수료하여 공동체 리더로 서게 되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미술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미술 활동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2)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은 현재 40대 중반 중년 여성으로 5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이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으로 아버지와 같은 듄직함이 느껴져 만남을 가진지 1년 만에 결혼하였다. 결혼하고 싯혼부터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에 모든 걸 맞추며 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장남으로 시부모님의 극진한 편애 속에서 성장했다. 그래서인지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했고 생활력도 약했으며 모든 결정을 시부모님의 뜻에 따랐다. 연구참여자 2는 근면 성실한 친정아버지의 영향으로 부지런했으며 성실했다. 남편의 과도한 요구에도 싫은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참고 견디며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며 살았다. 시어머님의 병간호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다가 결국 심신이 지쳐 과로와 우울증으로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다. 그 이후 우울과 공황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별거에 들어갔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오랜 시간 버티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이혼 후 몸과 마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고 인생이 다 망쳐버린 것 같은 비참함과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 대한 자기비난과 분노로 가족들까지 회피할 정도로 세상과 담쌓기 시작했다. 그나마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셔서 그곳에 머물며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기능적인 것들을 겨우 해나가고 있었지만, 절망감을 떨칠 수가 없었으며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져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이혼이 주홍글씨처럼

느껴졌고 혹여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될까의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 초라함이 느껴져 한없이 작아졌다.

연구참여자 2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교회공동체의 모임도 나가게 되고 단절했던 친구들 모임도 나가게 되면서 많은 회복이 있었다. 언니를 통해 연구참여자 2의 사정을 아는 교회 지인들이 번갈아 가며 문자도 주고 식사도 하면서 세심한 돌봄을 주었으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하였다. 전도사님의 심방과 중보기도는 더욱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 과거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이후 나를 놓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어디에 있던지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조금씩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결혼생활을 아내도 아닌 며느리의 정체성으로만 살았었다. 이제는 한 인격체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좋아하는 사회복지 관련 공부도 시작하였고 자격증도 준비하면서 점점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다.

(3)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현재 40대 초반 중년 여성으로 12년간 결혼생활을 했으며 이혼한 지 4년이 되었다. 소개로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다정다감했던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폭력적인 남편으로 변해갔다. 화가 나면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거나 협박하는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남편도 가정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회복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폭력의 원인이 남편의 원가족으로 인한 성장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어떻게든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상담과 병원을 병행하며 남편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편이 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부관계는 파국적으로 치달았다. 오랜 시간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이혼 당시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을 주체할 수 없었으며 정신적·정서적으로 피해를 겪었다. 이혼 후 남편과 함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단절했으나 그럴수록 분노와 배신감은 더 거세지고 환경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했다. 이혼 사실을 숨기고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연구참여자 3은 결혼 전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혼 후 내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

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렸다. 어느 날 새벽예배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웠던 모든 순간이 위로받았다. 매일 새벽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살았으며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현재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모 상담과 온라인 가정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4)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는 현재 50대 중반 중년 여성으로 27년간 결혼생활을 했으며 이혼한 지 6년이 되었다. 남편과는 대학 때 만나 결혼했으며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 전업주부로 살았다.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돈과 명예를 얻었고 점점 집에 있는 날이 적어졌다. 그래도 남편 덕분에 집안 살림이 좋아지고 외부에 나가면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귀빈 대접을 받다 보니 남편을 위해 열심히 내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부모님의 병간호, 아이들 양육 등 하루종일 개인 시간 없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서서히 가정과 멀어졌고 급기야 일이 많다며 직장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나가게 되었다. 아침저녁으로 입을 옷과 반찬을 해다 나르는 등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남편은 이미 외도를 했었고 남편의 강한 이혼 압박에도 1년을 버티다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혼 직후 남편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심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외도는 남편이 했음에도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았고 집안일로 남편을 돌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오히려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일도 있었다. 이혼의 원인이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에게도 미안했고 친정 부모님에게도 죄스러웠다. 때로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남편에게 전화나 문자로 저주를 퍼부었으며 남편과 관계된 사람들과 단절하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방해하는 등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며 자신도 모르게 옥상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자신이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과 허전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혼 후 삶을 포기하려고 옥상을 올라가 뛰어내리려는 순간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 후 성경 모임도 나가고 교리공부 모임도 나가면서 교인들과의 따뜻한 만남과 나눔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친구의 권면으로 신앙훈련을 하게 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

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미움이 긍휼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혼 후 가정의 역할과 생계유지를 위해 다양한 일들을 도전하면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더불어 수입도 생기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혼자서 하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었다. 과거 자신의 정체성이 며느리와 아내, 엄마였다면 지금은 방송인으로 전문직 여성의 삶을 살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통해 삶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5)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현재 40대 초반 중년 여성으로 9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이혼한 지 11년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5는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동네 선배들과 어울려 쉽게 돈을 벌려고 했고 비행도 일삼았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폭력이 시작되었고 아빠가 되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과 외도까지 하는 것을 보고는 이혼을 결정했다. 연구참여자 5는 1년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보냈다. 아이들에게 아빠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정신 차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폭력 가정 지원센터에서 한 달간을 보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남편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으며 남편에게 쫓기는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리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연구참여자 5는 이혼 후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었던 집사님 덕분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도 집사님의 지속적인 도움과 배려가 있어 아는 사람 하나 없었던 타지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고 배려해 주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 따스함과 평안함을 느꼈으며 외로움과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 집사님들의 지속적인 돌봄과 보살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5는 과거를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 이제는 아이들과 마음 편안하게 일상의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믿고 처음으로 자신의 존귀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교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에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미용사라는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실력을 쌓고 있는

며 미용실을 개업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다.

(6)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현재 40대 중반 중년 여성으로 6년간 결혼생활을 했으며 이혼한 지 6년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남자와 주위의 권유로 교제를 시작하다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5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셨다는 믿음이 있었다. 결혼 후 3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으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카페를 오픈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남편의 외출이 잦아지고 외박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후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년 정도 이혼 숙려기간을 지나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5년 동안의 기도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허망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미안했으며 외도했다는 사실이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뢰가 무너지니 하나님도 원망스러웠다. 이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신앙생활은 단절하게 했다. 이혼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중에도 남편이 생각나고 함께 손잡고 갔던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성을 잃고 어린 딸을 붙잡고 우는 날이 많았다. 친정 식구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가 하면 폭언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 자책했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6은 남편과 함께 알고 지내던 교회분들과 단절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으며 담을 쌓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다. 6개월 정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구역장님의 기도와 돌봄을 받아 다른 교회로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공동체에 나가고 교인들과 교제도 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권사님의 권면으로 봉사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세상에 나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친정 식구들과의 소원한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교회의 도움을 받아 방황했던 딸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고 공부의 도움을 받은 것도 큰 힘이 되었다.

(7)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은 현재 50대 중반의 중년 여성으로 15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이혼한 지 12년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성격 좋은 남편은 주변에 친구가 많았고 술을 좋아해 외박하는 일이 빈번했다. 결혼 후 1년 정도 지나자 남편의 불성실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술과 여자로 문제를 일으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미안하다며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외도하는 남편을 보면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이혼 후 서울로 올라와 단칸방에 살면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흔들었으며 남편의 빈자리가 허전하고 그리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이 몰래 흐느껴 울기도 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고 자신을 원망하거나 이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차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자책감에 시달렸으며, 자신마저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경제적인 압박감이 몰려오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해치게 되어 주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혼에 대한 자책과 후회가 더 깊어져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니게 되면서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연구참여자 7은 동네 식당에서 주방보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곳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옆집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 가던 날도 크리스마스 즈음이라 교회의 모습이 화려하고 보는 것만으로 따뜻했었다.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던 것은 공동체 소그룹에서 만나면 항상 손을 감싸고 기도를 해주었던 집사님들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분들의 권면으로 부활절 예배에 나가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존재감 없었던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딸'로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 그 이후로는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교회 지인분들이 아시고 딸아이의 장학금을 지원해주었던 것도 큰 힘이 되었다. 남편과 이혼 후 가족까지 단절된 상황에서 의지할 곳 하나도 없었던 우리에게 교회는 한 줄기 희망이었고 구세주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조금씩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2) 사례 간 공통주제 분석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87개의 주제들을 공통주제로 분류하여 27개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27개의 하위범주에서 공통주제들을 재차 분류하여 8개의 상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8개의 상위범주는 연구 질문이 다루는 주제인 ‘관계 상실 경험’, ‘회복과정’, ‘신앙의 역할’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나타난 사례 간 공통주제는 <표 2>와 같다.

<표 2> 사례 간 공통주제 분석

차원	상위범주	하위범주	사례 내 주제
관계 상실 경험	산산이 부서진 자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별	-가정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기다림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이별 결정
		한순간에 무너짐	-세상에 버려져 고아가 된 느낌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마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림
		요동치는 감정들	-이혼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 -외도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남편을 선택한 자신에 대한 비난과 분노
		신앙을 놓아버림	-5년간의 기도가 물거품이 되어버림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내 편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기도와 예배, 봉사 등 모든 신앙생활을 멈춰버림
	고통으로 얼룩진 삶	마음 깊이 스며드는 외로움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김 -삶이 허무하게 느껴짐 -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과 허전함
		가족에게 미안한 존재	-부모님에게 짐이 되어버림 -방황하는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미어짐 -가족들에게 창피한 존재가 됨을 인지함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	-여자로서 모멸감과 치욕스러움을 느낌 -버림받았다는 수치스러움에 위축됨 -배신감과 분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샘
	과거에 간혀버린 일상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지는 과거의 기억들 -죽어야 끝날 것 같은 부부의 인연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힘	-이혼녀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느낌 -남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음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 같음

관계 상실 경험		삶의 희망이 사라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음 -모든 것을 놓아버림 -미래가 사라짐
		신체화 증상과 정서적 고통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이상증세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달고 살게 됨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숨이 막힘
	무거운 삶의 무게	삶의 버거운 짐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공포로 다가옴 -아이들 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 -생활고의 버거운 짐으로 속이 타들어감
		단절된 삶으로 고립됨	-이혼녀라는 주홍글씨로 두문불출함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단절 -아이들과 정서적 소통의 단절 -이혼으로 사람들을 회피함 -가족 외에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림
		파국적인 관계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복수를 시도함 -교회 성도들과 다툼 -양쪽 집안의 싸움으로 번짐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디고 버텨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려고 발버둥 치 -떠오르는 기억을 떨치려 일에 매진함 -삶을 포기하려는 자신과 싸움 -병원과 교회 상담을 받기 시작함
회복 과정	상처 감싸며 일어서기	숨을 불어 넣어준 가족	-가족들의 도움으로 교회에 첫발을 내디딤 -친정 식구들의 세심한 돌봄과 위로 -엄마의 간절한 기도에 정신을 차림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함
		도움의 손길	-교회의 물질적 후원에 살아갈 힘이 생김 -교회의 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에 입학함 -교회공동체에서 학습 도우미 지원을 받음
		영적으로 회복된 시간들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와 돌봄 -교역자의 헌신적인 섬김과 위로
	삶의 의미를 찾아감	현실을 받아들임	-과거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됨 -아이들과 남편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짐 -남편에 대해 긍휼함이 생김
		관계단절의 사슬을 끊어 냄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기 시작함 -소원했던 친정 식구들과 화해함 -이혼녀라는 것을 숨기지 않음 -단절했던 교회공동체를 다시 나가게 됨
		주체적인 나로 세워짐	-전문직 여성의 삶을 살아감 -개명하여 새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함 -숨기고 싶은 이혼녀에서 당당한 싱글맘으로 살아감

신앙의 역할	하나님과과의 관계 회복	고통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	-십자가의 복음으로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옴 -내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원망을 멈추게 함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분노가 가라앉음
		하나님과과의 깊은 교제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가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남
		하나님 사랑에 붙들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 -예배와 기도를 통해 마음이 평안해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
	자아 정체성과 삶의 회복	소명 받은 자의 삶을 소망함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로 성장함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 -복음을 증거 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됨
		자기실현의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	-신앙적 가치관의 변화로 새로운 시각이 열림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함 -멈추었던 공부와 자격증에 도전함 -교회사역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갖게 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남아 있는 고통 속에서도 신앙으로 삶의 균형을 잡아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함 -경제적 어려움에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됨

(1) 관계 상실 경험

① 산산이 부서진 자아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외도, 폭력,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경험하면서 남편과의 이별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 결정을 반복했다. 연구참여자 4는 외도하는 남편을 붙들고 매달렸으며 이혼을 하기까지 수년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이혼의 경험이 인생의 실패자이며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관계 상실 경험은 정서적인 고통을 가져오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7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3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에 남편을 선택한 자신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멈추지 않았다. 이는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관계 상실의 고통을 신앙과 연결 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와 예배를 멈추는 등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너무나도 긴 싸움을 했어요. 가정을 살려 달라고 새벽기도에 매달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많이 쏟아 냈어요.. 왜 이런 고통을 바라보고만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연구 참여자 4).

② 고통으로 얼룩진 삶

연구참여자들은 관계 상실의 경험으로 깊은 외로움, 허무함, 배신감, 분노, 수치심 등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 5는 이혼으로 인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함을 느꼈으며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다. 연구참여자 6은 배우자와 나누었던 기쁨과 슬픔이 단절되면서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 3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여자로서의 모멸감과 치욕스러움을 느꼈고 인생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둠을 경험하며 버림받았다는 수치스러움에 모든 일상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경험을 했다. 연구참여자 2는 가족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어 있는 자신을 인지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친정집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찬거리 사러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눈만 마주쳐도 괜히 죄지은 사람처럼 피해야 했어요(연구 참여자 1).

③ 과거에 갇혀버린 일상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과거의 기억으로 고통받거나 자녀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 부부의 인연을 경험하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요동치는 감정으로 인해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는 이혼녀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연구참여자 4는 아이들이 결손가정이라는 이유로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비참해지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5는 배우자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관계 상실 경험은 신체화 증상을 동반하기도 했는데 정신적 이상증세와 우울증, 공황장애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주었으며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게 했다.

가슴에 뜨거운 돌덩이가 들어 있는 것처럼 가슴이 눌러 답답하고 아팠어요. 병원을 가도 약이 없고..매일 얼음물을 3리터는 더 먹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혼잣말도 많이 했어요. 아이가 엄마 왜 그러냐며 무섭다고 하면 정신이 들었죠. 밤에는 가위에 눌러 깨는 일이 허다했어요(연구 참여자 3).

④ 무거운 삶의 무게

연구참여자들은 관계 상실 이후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욱 고립된 삶을 살아갔다. 연구참여자 6은 남편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했으며 자녀와의 정서적 소통도 단절했다. 연구참여자 7은 가족 외에는 모든 관계를 단절했으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과 사투를 벌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1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일상의 삶이 버거운 삶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뭐를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지?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죽을 생각도 많이 했고 남몰래 시도도 해봤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연구 참여자 5).

(2) 회복과정

① 상처 감싸며 일어서기

연구참여자들은 관계 상실로 인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경험했지만, 가족과 교회공동체의 도움으로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통의 끝에서 가족과 교회공동체의 도움으로 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그들에게 신앙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미래를 소망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연구참여자 4는 죽고 싶었던 절망의 순간에 친정엄마의 간절한 기도소리에 정신을 차리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2는 친정아버지의 세심한 돌봄과 위로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관계 상실 후 겪었던 고통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는데 성도들의 물질적인 후원과 교회의 장학금 지원 등이 그들을 절망감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이혼하고 돈에 쪼달리고 몸도 아프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오니까 어디다 의지할 데도 없고 해서 서러웠어요. 매일 신세 한탄하며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웃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에 가면 점심 준다고..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잘해줘서 천사를 만난 것 같았어요. 생판 모르는 남을 댕가도 없이 도와주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때 되면 먹을 거, 팔에 옷, 반찬, 쌀 등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보조금을 매달 받기도 했죠. 몸이 약해서 하루 일하면 하루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도움은 정말 생명 같았어요!(연구 참여자 7).

② 삶의 의미를 찾아감

연구참여자들은 관계 상실 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현실을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했다. 기억하기조차 힘들었던 과거의 상처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원망이 기도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경험했다. 단절했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와 교회 지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일상을 시작하면서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회공동체를 나가게 되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연구참여자 2는 교회상담을 통해 영적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으며 연구참여자 5는 교회공동체의 도움으로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친정 식구들에게 화를 냈어요. 언니, 엄마한테 막말하고 딸하고도 싸우고.. 교회 다니는 둘째 언니가 나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언니 권유로 교회공동체에 나가게 되면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건네는 중보기도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던거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연구 참여자 6).

(3) 신앙의 역할

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연구참여자들은 관계 상실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했다. 연구참여자 5는 자살의 위기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6은 세상에 버려져 고아가 된 것 같은 암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든 원망을 멈추었다. 그들은 원망과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켰으며 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삶의 중심을 잡아갔으며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그들을 고통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힘들게 이혼했는데도 헤어지고 나니까 삶이 공허하고 많이 외로웠어요...이혼하고 몸을 추스르면서 교회 상담도 받게 되고 집사님들과 교제도 나누면서 교회도 나가게 되고 예배도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죠. 이혼 후 앞으로 나한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소망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감도 생겨요(연구 참여자 2).

② 자아정체성과 삶의 회복

연구참여자들은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무너졌던 일상의 삶들이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각자 달랐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1은 고통받았던 삶의 주인공에서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로 성장했으며, 연구참여자 5는 버림받은 자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 회복되어가는 삶을 살았다. 연구참여자 4는 상실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자기실현의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신앙의 회복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이어져 여전히 남아 있는 고통 속에서도 과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혼 후 삶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러던 중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에 나가 소그룹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말씀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

누는 것도,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지난 날의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면서 너무 평안하고 모든게 감사했어요!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주일에 교통봉사도 하고 여름엔 단기선교도 나갔어요.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해요. 비록 한 달 벌어 한 달 살지만, 굶기지는 않으세요. 일하는 기쁨도 주시고 더불어 좋은 사람들도 붙여 주시고..(연구 참여자 4).

사례 간 분석 결과 관계 상실 경험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정서적인 변화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이혼 사유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경우에는 이혼 직후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갔지만 외도와 폭력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부정적 감정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오랜 기간 일상의 삶을 부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혼 사유가 성격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비난과 자책감이 많았으며 허무감이 인생 전반에 내포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슬픔은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보임으로써 감정으로 표현 되어졌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들 모두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회복 과정을 촉진하였으며 신앙의 회복은 자아 정체성과 삶의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닫는글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중년 이혼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7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 87개, 하위범주 27개, 상위범주 8개를 도출하였다. 상위범주 8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 상실 경험’, ‘신앙의 역할’, ‘회복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선행연구와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

1) 논의

(1) 관계 상실 경험에 대한 논의

‘관계 상실 경험’의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신앙적 부분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경험을 설명해 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혼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성격 차이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혼의 원인과 상관없이 관계 상실의 경험은 참여자 모두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며 신념과 가치관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등 신앙적 어려움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산산이 부서진 자아’의 발현에서 신념과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며 신앙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관계 상실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은 세상에 대한 위협과 스스로에 대한 취약성을 인식하게 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수정하게 된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신에 대한 분노와 인생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초월적 존재인 신에게 책임을 돌려 원망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기대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안선영, 2013; 안현의, 2013; 조진희, 201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로 인해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다는 절망감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나누었던 인생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던 신념에 대한 혼란으로 자기지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의 발현에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 관계 상실 경험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애도의 정서로 직

책감, 수치심, 외로움, 슬픔, 절망, 공포, 무력감, 당혹감 등을 경험한다(Anderson & Mitchell, 1983). 연구참여자들은 관계 상실 후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거나 곁에 아무도 없다는 허전함이 공허함으로 이어지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 고립된 삶을 선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에 간혀버린 일상'의 발현에서 반추적 사고와 신체화 증상, 정신적 장애를 경험했다. 관계 상실과 같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머물게 되면 부정응적인 상태로 침몰하여 정신병리와 관련이 높은 잠긴(brooding) 반추를 경험하게 된다(임선영, 권석만, 2013; 최선재, 2010; 박경원, 2019). 연구참여자들은 이혼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에 대한 기억과 심상이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잠긴 반추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신체화 증상과 정신장애로 이어지게 되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무거운 삶의 무게'의 발현에서 단절된 삶으로 고립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혼 여성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이는 자녀들의 양육과 연결되기 때문에 심할 경우 공포감으로 다가온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여성의 경제 활동 또한 증가했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며 특히 중년기 여성의 경우 동일한 연령대의 결혼한 여성 또는 미혼 여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박경원, 2019; 성경현, 2017).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주방보조를 하거나 자녀를 돌봐줄 사회적 지지망이 없어 아이를 업고서 일을 해야 했으며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2) 신앙의 역할에 대한 논의

'신앙의 역할'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현실의 적응과 수용,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 일상의 삶과 정체성이 회복되며 가치관의 변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을 설명해 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신앙과 가족, 주변인들이 도움으로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의 삶에 적응했다.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서서히 수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과거와 달리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어 이전과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발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삶의 태도가 변화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나타나게 된다(김규보,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단절하며 살았던 원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교회공동체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아정체성과 삶의 회복’의 발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에 도전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정체성 회복과 가치관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삶을 통해 나타났다. 김동영(2015)은 상실의 경험을 극복하고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실에 대한 아픔과 미래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온전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안경승(2014)은 상실로 인한 슬픔 속에서 성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강조하며, 기독교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대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원인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현실을 수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남아 있는 고통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

(3) 회복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논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삶’의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회복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가족과 교회공동체의 도움의 손길과 연구참여자들의 신앙적 자원을 설명해 준다. 연구참여자들은 회복과정에서 가족, 교인들, 교회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고통의 수렁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었으며 고통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상처 감싸며 일어서기’의 발현에서 가족과 교회공동체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다. 이혼자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교회공동체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며 그들을 위한 공감적 지지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여 이들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Rambo, 1983). 연구참여자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가족과 교인들의 도움으로 숨을 쉴 수 있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교회의 구제와 도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감'의 발현에서 현실을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했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갔다. 인간은 깊은 슬픔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슬픔을 극복하며 상실 자체를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신념이 현실적인 고통을 수용하고 이겨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최재락, 2010; 전요섭, 2000; 안경승, 2014).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 안에서 상실의 고통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중년 이혼 여성들의 관계 상실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역할에 대해 그들 고유의 경험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상실 경험은 이혼 후 겪게 되는 정서적 고통의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아가 부서지고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관계 상실 이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경험했으며, 자동적이고 침묵적인 사고의 반추로 분노,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정신적 고통으로 현실에 부적응적인 상태로 침몰해 갔다. 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으며 주변의 도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앙생활까지 단절해 버리는 등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고립된 생활로 이어졌다.

둘째,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은 회복과정을 촉진하였으며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인 고통을 극복하여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가족과 교인들의 도움으로 숨을 쉴 수 있었으며, 교회의 구제와 도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돌봄의 손길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상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신앙의 회복은 정체성과 삶을 회복시켰으며 가치관의 변화를 주었다. 기도와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연구참여자들을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일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들을 위로받고 치유 받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경험했으며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했으며 과거 이혼녀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제자', '소명 받은 자'라는 각자의 정체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 중년 이혼 여성들의 관계 상실 경험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함으로써 삶의 전 영역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다. 그러나 내부자적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관계 상실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여 보았을 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토대가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따라서 관계 상실의 경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해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기존의 신념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회복과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기독교인 중년 이혼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에 대하여 그들 고유의 경험을 내부자적 관찰을 통해 기독교상담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관계 상실 경험을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한 사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가 기독교 상담과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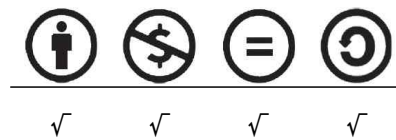
2. 제언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상담과 돌봄,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상담자와 돌봄 사역자는 이혼의 관계 상실 경험을 가진 내담자가 애도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내담자의 고통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고, 신앙 안에서 회복하고 성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교회 차원의 공동체 모임과 치유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이들이 회복과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인

발판들이 마련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후속연구를 위해 관계 상실 경험에 관한 연구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도구의 활용이나 일상재구성법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단일한 특성을 갖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상실 경험에 대한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의 제한으로 인해 일반화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또한 분석된 자료들은 면담자료와 관찰일지, 자기보고형 질문이나 개인일지 등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왜곡이나 편향으로 인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1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03월 02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03월 08일



【참고문헌】

- 권석만 (1995). 정신병리와 인지 1: 정서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17, 45-95.
- 금일화 (2018). 크리스천 중년 이혼여성의 적응과정에 관한 목회상담 연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규리 (2019). 종교적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기독교인 이혼자를 위한 목회적 돌봄 연구. **신학논단**, 95, 7-34. <http://dx.doi.org/10.17301/tf.2019.79..007>
- 김규보 (2019).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그리스도 믿음의 실천적 함의. **성경과 신학**, 90, 99-139.
- 김경옥 (2018). 이혼한 여성한부모의 삶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영 (2015). 상실과 애도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이해. **신학논단**, 79, 125-159. <http://dx.doi.org/10.17301/tf.2015.79..125>
- 김송희 (2020). 관계 상실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의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감사성향을 매개변인으로. 상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권신영 (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 41-75.
- 김아라 (2015). 관계상실 경험 중년기 성인의 감사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준 (2013). 개혁주의 인간이해와 강박증. **충신대논총**, 33, 403-429.
- 박경원. (2019). 이혼 여성의 어려움과 부정적 정서 대처경험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정 (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0, 71-94.
- 박재표 (2012). 로템나무 전인 치유 학교를 통한 사별 가족 돌봄. 장로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봉동연 (2014). 중년여성의 이혼 위기 경험 연구. 백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정현 (2017).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의 자립경험. **한국콘텐츠학회**, 17(5), 137-152. <http://doi.org/10.5392/JKCA.2017.17.05.137>
- 송 옥 (2012). 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수명 (2005) 이혼률 감소를 위한 미래적 대안에 관한 연구-기독교 관점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4, 263-289. <http://dx.doi.org/10.17841/jocag.2005.4.263>
- 안경승 (2014). 상실로 인한 슬픔 이해하기. **복음과 상담**, 22(2), 9-40. <http://dx.doi.org/10.17841/jocag.2014.22.2.263>
- 임선영, 권석만 (2013).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 **한국심리학회**, 32(3), 567-588.
- 장형배 (2020). 관계상실경험자의 애도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기은폐의 매개 효과. 카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요섭 (2000).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에 기초한 목회상담의 과정. **복음과 실천신학**, 1, 124-157. <http://dx.doi.org/10.25309/kept.2000.1..124>
- 전지경 (2017).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성장을 매개효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5(11), 339-349.
- 조진희 (2018). 관계 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한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진희, 정문경 (2020).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심리학회**, 12(4), 343-357.
- 최동인 (2005). 크리스천 중년 여성들의 이혼 후 적응형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323-341.
- 최재락 (2010). 슬픔의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 **신학과 실천**, 23, 287-315. <http://dx.doi.org/10.14387/jkspth.2010.23..287>
- 한재희 (2003). 이혼문제와 목회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 5, 106-132.
- 홍구화 (2010). 상실로 인한 슬픔에 대한 효과적인 위로 사역.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319-341.
- 황영훈 (2002). 기독교인을 위한 이혼 상담. **신학과 실천**, 5, 197-228. <http://dx.doi.org/10.14387/jkspth.2002.5..197>
- Amato, P. R., & Rogers, S. J.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12-624.
- Anderson, H., & Mitchell, K. R. (2004). **상실과 슬픔의 치유**(김형준, 윤혜원 역,

-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서울: 상담과 치유. (원전 1983 출판).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altes, &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 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ner, D. G. (1998).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MI: Baker.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 2. New York: Basic Books.
- Castaldo, D. D. (2004). Divorce at midlife for women without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 Creswell, J. W. (2017).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서울: 학지사. (원전 2015 출판).
- Creswell, J. W. (2018). **연구방법: 질적·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정종진, 김영숙, 류성림 공역,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 4th ed.).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17 출판).
- Fielding, E. W. Love and Marriage. *Human life Review*, 14(4), 70-76.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Hoekema, A. A. (2012). **개혁주의 종말론** (이용중 역, *The Bible and the future*)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979 출판).
- Kendler, K. S., Hettema, J. M., Butera, F., Gardner, C. O., & Prescott, C. A. (2003). Life event dimensions of loss, humiliation, entrapment, and danger in the prediction of onsets of major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8), 789-796.
- Kitson, G. C. (1992). *Portrait of divorce*. New York: The Free Press.
- Kohut, H. (2005). **자기의 분석** (이재훈 역, *The analysis of the self*).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71 출판).

Kristner, M. A. (1994). Adjustment to divorce as related to stability and change in identity in a midlife cohort of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Lewis, C. S. (2018). **고통의 문제**(이종태 역, *The problem of pain*). 서울: 홍성사. (원전 1940 출판).

Luck, W, F. (1987). *Divorce and remarriage*. San Francisco, CA: Haper and Row.

Rambo, L. (1983). *The divorce Christia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Sofka, C, J. (1997). Loss history checklist. In J. D. Maanino (Ed.) *Grieving days, healing days* (p. 20). Boston: Allyn & Bacon.

Welch, E. T. (1994). Exalting pain? Ignoring pain? What do we do with suffering?.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2(3), 4-19.

Worden, W. J. (2016). **유족의 사별 애도 상담과 치료**(이범수 역,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서울: 해조음. (원전 2002 출판).

Wright, N. H. (2010). **트라우마 상담법**(금병달, 구혜선 역, *New guide to crisis & trauma counseling*). 서울: 두란노서원. (원전 2002 출판).

통계청 (2021). 2021년 혼인·이혼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22년 3월 12일 인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1). 이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 Result.do>에서 2021년 12월 23일 인출.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relationship loss
experiences among Christian middle-aged divorced
women: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

Lee, Hoo Joo*

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relationship loss experienced by middle-aged Christian divorced women. To this end, by in-depth research and analysis of individual experiences and meanings of relationship loss experienced by divorced women, this study tried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recovery process and the role of faith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of loss of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r each case, sentences that clearly reveal the loss of relationship experiences and meaning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extracted, 87 themes, 27 subcategories, and 8 upper categories were derived through meaningful uni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p 8 categories are 'shattered self', 'life stained with pain', 'daily life trapped in the past', 'heavy life's weight', 'covering up wounds', and 'finding the meaning of life'. , 'restoration of relationship with God', 'recovery of self-identity and life'. The 8 upper categories were classified into 'relationship loss experience', 'recovery process', and 'role of faith', which are the topics covered by the research ques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solutions to help middle-aged divorced Christian women effectively in Christian counseling and church care settings who are experiencing relationship loss. The study aims to provide a framework for follow-up research as well.

Key words: Christian middle-aged women, divorce, relationship loss,
Christian counseling, recovery.

* Marpeh Counseling Center / Counselor